

깔끔하게 쓱~ 빌트인의 매력

주로 주방가전에 적용되던 빌트인이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깔끔한 주방 느낌을 주는 빌트인 욕실이 등장하는가 하면 본체와 액정화면을 분리해 지도 정보 갱신과 사후 관리(A/S)가 한결 편리해진 매립형 내비게이션도 주목받고 있다.

마치 커다란 장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각종 가전제품이 숨어 있다. 전자기구나 가구, 가전이 돌출되지 않고 내장된 이른바 '빌트인(built-in)' 제품들이다. 빌트인은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운 맛을 내기 때문에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제 빌트인은 국내에서도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고급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빌트인 주방가전을 도입한 지 오래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부쩍 늘어난 원룸형 오피스텔은 빌트인이 거의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빌트인시장의 규모는 2010년 현재 약 400억 달러로 유럽과 북미가 90%를 차지한다. LG전자는 지난해의 국내 빌트인 가전시장을 6천 6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2015년에는 7천600억 원으로 확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꼭지에서 정수와 커피를 바로

빌트인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역시 주방가전이다. 한국쓰리엠의 가정용 정수기 '필트릿'은 본체가 싱크대 아래 부분에 설치돼 기존 정수기처럼 별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외관도 깔끔해지고 주방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물이 싱크대에서 바로 공급되므로 마시는 물 이외에 채소나 생선, 쌀 등을 씻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 고밀도 카본블럭 필터 기술로 유해물질은 차단하고 인체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그대로 살려 내 물맛이 좋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이라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 걱정이 없고 전기를 쓰지 않으므로 유지비도 적게 든다. 전문가 도움 없이 가정에서 손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격은 59만4천 원이고 대여하면 월 2만9천900~3만9천900원씩 내고 사용하다 3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한국쓰리엠 <필트릿>




스캐노매트 <탐 블루어>

최근 덴마크의 커피메이커업체 스캐노매트가 내놓은 '탑 브루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수도꼭지이지만 알고 보면 빌트인 커피메이커다. 커피와 우유, 물, 주스 등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 공간에 기계가 숨어 있다. 하지만 아무런 조작장치도 안 보이니 어떻게 사용하나? 정답은 원격 조정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버튼만 누르면 15초 만에 따끈한 커피가 나온다. 커피 종류와 분량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커피메이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찌꺼기 청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므로 매우 편리하다. 매일 1분씩 우유 연결관을 비롯한 모든 관을 스스로 청소하며 사용량이 많으면 시간을 더 들여 꼼꼼하게 세척하는 똑똑한 기능을 갖췄다. 가격 미정.

욕실도 빌트인 바람

빌트인은 이제 주방가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40년 전통의 국내 욕실용품기업 로얄앤컴퍼니는 빌트인 욕실 '로얄 컴바스(ROYAL commbath)'를 선보였다. 샤워기와 호스, 양변기 물탱크, 휴지걸이 등이 보이지 않도록 꾸며져 마치 주방 같은 깔끔한 느낌을 준다. 수납공간이 넓어 수건, 드라이기, 청소용구 등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으며 전자동 칫솔살균기, 세면대와 샤워기 리모컨, 삼림욕 효과를 내는 편백나무 목욕의자 등은 선택사항이다. 첨단 전자장치 덕분에 세면대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세기와 온도를 사용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냉·온수가 갑자기 뒤바뀌는 불상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수납장, 거울장의 5개 부품을 단위별로 구매할 수도 있고 욕실의 크기나 필요에 따라 맞춤 주문도 가능하다. 가격은 양변기 150만 원, 세면기 390만 원, 샤워기 452만 원 등이다.

차량용품도 빌트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거의 필수장비처럼 여겨지는 내비게이션이나 하이패스 단말기 등을 빌트인으로 설치하면 운전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4년여 만에 637만 대가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는 앞유리에 붙어 있다가 몸집을 대폭 줄여 룸미러 속에 숨었다. 내비게이션도 거치형보다는 중앙조작부에 집어넣는 매립형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훨씬 많다. 하지만 한 번 설치하면 그만인 하이패스 단말기와 달리 수시로 지도 정보 등을 갱신해 줘야 하는 내비게이션은 매립형이 불편할 때도 있다. 점검이나 교체할 때 소비자가 직접 뜯어내기가 어려워 전문가를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주)마이스터의 '만도 내비게이션 MI300'은 '분리 매립' 기술을 통해 이러한 애로를 해결했다. 액정화면과 핵심 부품을 담은 본체를 분리해 고장 나도 매립된 액정 화면은 손대지 않고도 본체만 떼어내 A/S를 받을 수 있다. 본체가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해 보조석 수납함에 설치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 가격은 50만 원대 중반으로 지도 정보 갱신과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TPEG) 이용이 무제한 무료다. 

정승희 기자 qqutti@hanmail.net



로얄앤컴퍼니 (로얄 컴바스)



(주)마이스터 <만도 내비게이션 MI300>